

우리나라 담배포장 변천사(2)

9. 탑(1955. 8~ 1956. 12)



탑담배는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을 표상으로 의장을 도안했다.

의장 하단 황선 및 탑형상을 흑갈색으로 하고 회색 황선을 상단 및 중앙에 조화있게 배열하고 전후면 상부에는 '탑'과 'PAGODA'를 흑갈색으로 표기했다.

담배의 포장형태는 20본들이 A형 갑포장이며 1955년 8월부터 1956년말까지 발매한 단명담배이다.

10. 파랑새(1955. 8~ 1964. 9)

파랑새담배의 갑포장지 의장은 백색 바탕의 상하단에 청록색 황선을 두 개씩 긋고 각형의 청록색 바탕 중앙에 백색의 각형을 다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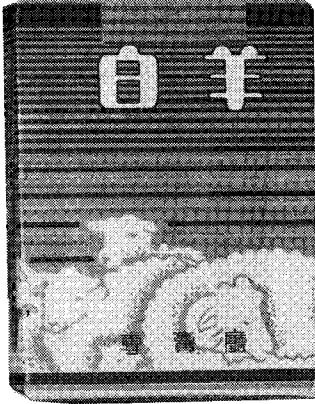
백색의 각형내에 전면에는 파랑새 형상을 청록색으로 도안하고 그 위에 '파랑새' 문자를 백색으로 표기했다.

후면은 '저축으로 산업부흥'을 청록색으로 표기하고 그 상부에 'Blue Bird'를 백색으로 표기했다.

후에 3차에 걸친 의장변경이 있었다.



11. 백양(1955. 8~ 1966. 7)



백양담배의 갑포장지 의장은 당시까지의 상, 하부 접음 봉합식 포장방법을 탈피하여 봉합지에 의한 봉합식으로 진일보한 포장형식이 채택됐다. 따라서 우리나라 담배 중 최초로 봉합지를 사용한 담배이기도 하다.

백양담배의 의장은 담갈색바탕에 암갈색의 굵은 횡선을 상부에 긋고 하부에는 적갈색 및 황색 횡선을 긋고 하부 적갈색선에 접하여 위쪽으로 수많은 흰 양떼를 백색으로 도안했다. 양떼 위에는 황색과 암갈색 횡선을 고루 배치하고 갑포장의 상부에 전면은 '백양' 후면에 'WHITE SHEEP' 을 백색으로 표기했다. 최초 발매 후 백양담배의 의장은 4차에 걸친 변경이 있었다.

12. 진달래(1957. 1~ 1966. 6)

진달래담배의 갑포장지 의장은 인쇄상의 백색바탕의 하단에 군청색의 굵은 횡선을 긋고 이 선을 기점으로 하여 굵고 가는 분홍색 횡선을 조화있게 배열했다.

갑포장지 중앙에 진달래꽃을 분홍색으로 도안하고 그 상부에 '진달래' 와 'AZALEA' (후면)을 군청색으로 표기했다.

그후 진달래 담배의 의장은 인쇄상의 애로가 많아 5차에 걸친 변경이 있었다.

갑포장형태는 A형이었으나 4차 의장 변경때는 밑으로 둘러싸는 H형 포장이었다.



13. 사슴(1957. 1~ 1962. 8)



최초의 Side형 편(Hard) 포장담배로써 10본들이로 발매됐다. 사슴담배의 갑포장지 의장은 상·하부로 이등분하여 상부는 회색 바탕에 힘차게 달리고 있는 사슴의 형상을, 하부는 균청색 바탕에 '사슴' 문자를 백색으로 도안했다.

후면은 상부에 'Deer' 하부에 'OFFICE OF MONOPOLY' 와 'KOREA' 를 백색 두 줄로 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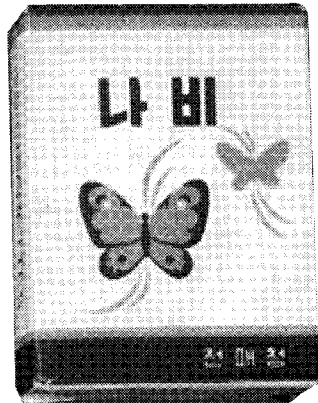
변경된 의장은 청록색 각형 가장 자리를 금색선으로 두르고 청록색 각형 중앙에 금색의 사슴 형상을 도안했다.

14. 나비(1960. 1~ 1962. 8)

나비의 의장은 갈색과 황색의 횡선을 상하단에 긋고 그 중앙에 노랑나비를 도안했다. 그 윗부분에 갈색의 굵은 고딕체로 '나비' 와 'NABI' 를 전면과 후면에 표기했다.

불과 8개월만에 변경된 갑포장지 의장은 하늘색 바탕에 호랑나비를 흑갈색으로 도안하고 담배 명칭을 그 위에 역시 흑갈색으로 명기했다.

포장형태는 아래위의 모서리를 접어서 봉하는 A형 포장이었다.



15. 재건(1961. 7~ 1964. 11)



재건담배는 '5.16' 직후 발매된 담배로 군사정권의 이념을 본따서 재건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재건담배의 갑포장지의장은 갑포장지를 상하로 삼등분하여 상부는 백색으로, 하부 2/3부분은 흑자색으로 하고 포장지전면에 황색의 나무 기둥을 종횡으로 배열하여 건축중인 공사현장을 나타냈다.

상부 백색 바탕에는 '재건' 및 'JAEKUN'을 흑자색으로 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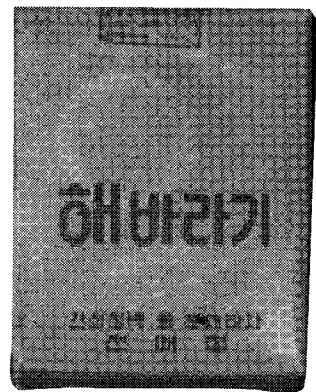
포장형태는 10본들이 Side형 편포장이었다.

16. 해바라기(1962. 1~ 196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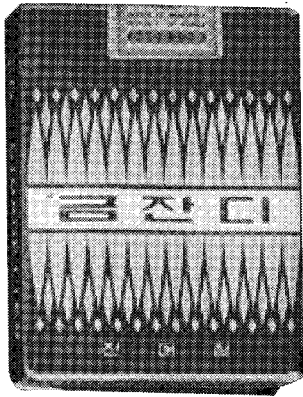
해바라기담배의 의장은 황색 바탕의 중앙전면에 '해바라기' 후면에 'Haebalagi'를 흑색으로 표기하고 글씨의 좌측상부에 둥근 해바라기의 꽃모양을 회황색으로 도안했다.

꽃을 향하여 비추는 햇빛의 상징으로 담황색의 지그재그 무늬를 대각선으로 표시했다. 해바라기는 당시의 대중용 중급담배로 14본들이로 발매됐다.

하지만 해바라기는 당시 적성국이던 소련의 국화임이 판명되어 발매 1년 만에 생산을 중지한 단명담배이다.



17. 금잔디(1965. 7~ 1973. 12)



금잔디담배의 갑포장지 의장은 청색 바탕 중앙에 황으로 백색띠를 만들고 그 백색부분에 청색으로 '금잔디'와 'GEUM JANDI'를 표기했으며 문자를 중심으로 상하부에 담황색으로 형상을 도안했다.

그 후 의장 내용을 단순화하기 위해 의장을 변경했으며, 변경한 의장은 당시 전매청에 설치된 갑포장지 의장 도안실 전문위원의 작품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포장형태는 20본들이 A, H형 포장이었다.

18. 백조(1965. 7~ 1973. 12)

우리나라는 예부터 백의민족이라 하여 백색을 숭상했다. 이러한 민족성에 의해 담배 명칭도 '백합', '백구', '백양', '백조' 등 백색을 사용하는 이름이 비교적 많다.

백조 담배의 갑포장지 의장은 갑포장지 중앙 황선을 중심으로 위쪽에 하늘색, 아래쪽에 청색삼각형을 대칭시켜 마름모꼴 각형을 만들고 하늘색 삼각형내에 백색 백조의 형상을 청색 삼각형내에는 '백조' 및 'BAEGJO'를 백색 글씨로 표기하고 있다.

백조담배의 갑포장형태는 20본들이 A, H형이었다.

